

이름과 존재는 같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창 2:19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름이자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성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아직 존재가 완전히 성립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현실을 보세요.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란 뜻으로 명사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창 5:2 볼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다른 존재들에게는 다 이름을 주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이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은 자기 뼈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뼈의 의미를 깨달으세요! 비록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 곧 자기의 돕는 배필을 만났지만 잠시 하나된 그들은 뱀의 시험으로 그 하나된 것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새 이름을 받는다고 계 2:17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요 5:4). 시험에 붙어야 합격자 명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시험을 이겼어야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는 믿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 1:14, 16:33). 이기는 자에게 이름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겨야 하는 일에 힘들고 지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생해야 사단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 6:3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요 17:3).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 1:1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여호와와 “야훼”로서 ‘스스로 계시자’란 뜻입니다 (출 3:13-14).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사 45:12).

여호와와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호 12:5). 히브리어로 기념은 제이케르(zeker)로 remembrance or memorial이란 뜻입니다. 요 3:16 볼 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 분을 날마다 기념하세요! 어두운데서 빛을 주신 그 분을, 승리를 주시는 그 분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을 생활에서 기념하세요 (고후 4:6, 호 12:3-6)!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창 2:7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흙은 세상입니다. 원래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주심으로 산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전 15:45-47).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첫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롬 5:14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실 자’는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에 아담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표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투포스(tupos - type, pattern, figure, example)로 상징, 전형이란 뜻입니다. 결국 아담의 사역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담을 만드신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 8:24 볼 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곧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10:30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잠 8:22-36, 고전 15:3-4).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1 요 2:25, 히 6:18, 사 14:24). 약속을 완성시키는 분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1 요 5:11).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시 8:1).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과 완성이라는 말이 같습니다. 영어로 아름답다는 표현은 beautiful 아니면 fine이라고 하는데 fine은 라틴어 finire로서 끝을(finish) 말합니다. 삶의 완성은 영생하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재림 주를 만나기까지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 2:17)! 믿다가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주 안에 남으세요!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 35:2)!